

낙소스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 선정'
Naxos new release

8.570291

J.S. 바흐:
건반작품집(반음계화합곡과 푸가,
아리아와 변주, 프랑스
풍 서곡 외)
예뇌 안도(피아노)

8.570234

반할:
플루트 사중주 Op.7-2, 3, 6
우베 그로트(플루트)
재너키 스트링 트리오

8.557935

헨델:
채플 로얄을 위한 음악들
콰이어 오브 채플 로얄
뮤지션스 익스트라오디나리엔드루
갠트

8.557724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는 Op.1-1, 2,
알레그레토 WoO 39
자이리온 트리오
(니나 티흐만, 이다 비에러,
마리아 크리겔)

8.557908

케루비니:
교향곡 D장조, 서곡들
(메데아, 파니스카, 로도이스카)
산레오 교향악단
피에로 벨루지

8.557710

엘가:
바다 풍경들, 뮤직 메이커스
사라 콜놀리(메조)
본머스 심포니와 합창단
사이먼 라이트

8.559257

디터스도르프:
교향곡 D장조, A장조,
Eb장조
리브르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
알바로 카수토

8.570198

쿠만:
교향곡 2번 '사랑과 비의 기도'
교향곡 3번 '이베 마리스 스탈라' 외
노라 스쿠라(피아노) 외
마르티누 필하모닉
슬로바키아 교향악단
커크 트레버

8.557981

시마노프스카:
바이올린협주곡 1, 2번,
아상곡과 타란텔라
일라 칼러(바이올린)
바르샤바 필하모닉
안토니 비트

8.570339

홀스트: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세인트 폴 모음곡,
발의 노래 외
제니스 그레이엄,
사라 이원스(바이올린) 외
잉글리시 심포니
하워드 그리피스

8.557857

차이르:
플루트를 위한 음악들
(그랑 콘체르토, 베네치아의 축제 외)
로베르토 파브리치아니(플루트)
베네치아 줄리아 오케스트라
스테판 프라크

8.570260

스페인 음악 속의 돈키호테
(로드리고, 로만, 게라, 골바우 외)
마드리드 코무니타드 오케스트라
라와 합창단
호세 라몬 엔치나

8.555024

로저스 & 해머스타인:
사운드 오브 뮤직, 왕과 나,
남태평양 외
리처드 해이먼과 그의
오케스트라

8.557861

마르티누:
피아노 오중주 1, 2번,
2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카렐 코샤렉(피아노)
마르티누 사중주단

8.557399

맥스웰 데이비스:
낙소스 현악사중주 7, 8번
마그니 현악사중주단

8.557784

백스:
비올라 소나타,
피아노 트리오 Op.4,
잔설곡 외
마틴 아우트렐(비올라)
로렌스 잭슨(바이올린)
줄리언 롤튼(피아노)

8.5570258

틴트너:
바이올린소나타,
피아노소나타,
찬구의 죽음 외
초량린(바이올린)
헬렌 황(피아노)

8.557911-12

하나스테라:
피아노, 오르간을 위한
작품 전집
페르난도 비아니
(피아노 & 오르간)

8.557914

마르티누:
피아노 작품집 vol.1
(폭스트롯, 노엘, 우화,
8개의 전주곡 외)
조르조 루키(피아노)

8.66079-82

바그나:
신들의 황혼
여러 가수들
슈투트가르트 슈타츠오페라
로타르 자그로세

8.111244

슈만:
시인의 사랑, 여인의 사랑과 생애
슈베르트:
겨울나그네(발행)
로테 레만(소프라노)
브루노 발터, 폴 울라노프스키
(피아노) 1941년 녹음

8.111260

엘가:
교향곡 2번, 첼로협주곡
(1927, 28년 녹음)
베아트릭제 헤리스(첼로)
런던 심포니, 뉴 심포니
에드워드 엘가

Monthly

Aulos news

월간 아울로스 뉴스 | May 2007

베토벤 교향곡의 피아노 연주로 폭발적 인기

콘스탄틴 세르바코프

New Release

데이비드 렌즈 A cup of moonlight

Special Release

법정스님 오디오북 연꽃향기를 들으면서

Cover Story

베토벤 교향곡의 피아노 연주로 폭발적 인기

콘스탄틴 세르바코프 Konstantin Scherbakov

스비아토슬라브 리흐테르도 감탄했던 솜씨

낙소스에서 가장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사람은 단연 예니 안도나 이딜 비레트일 것이다. 하지만 낙소스에서 우리를 매혹시켰던 탁월한 피아니스트들은 여럿 있다.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두 사람과 함께 이 피아니스트는 '낙소스의 간판 피아니스트'로 꼭 집어넣어달라고

주문해야만 할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콘스탄틴 세르바코프다. 요즘 국내 애호가들 사이에서 그의 이름이 자주 회자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최근 출시한 아이템의 특별함 때문이기도 하다. 그 특별 아이템은 바로 베토벤 교향곡 전곡의 피아노 연주 음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렌 굴드나 시프리앵 카차리스의 음반처럼, 리스트가 편곡했던 베토벤 교향곡들의 피아노 연주녹음인데, 이제까지 꾸준히 낱장 발매해오던 음반들을 한데 모아 전집으로도 소장할 수 있게 했다. 이 음반의 국내 상륙과 폭발적인 관심. 하지만 여전히 생경하게 느껴지는 주인공 세르바코프에 대해 알아보자.

세르바코프는 시베리아의 바르나울(Barnaul)이란 도시에서 태어난 러시아 피아니스트로 1963년생이니 2007년 현재 40대 중반의 중견이다. 어릴 때부터 예사롭지 않은 재능을 보였던 그는 11세에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들고 나와 고향에서 데뷔무대에 올랐다. 어린 나이에 모스크바 행 열차를 탔고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에서 공부했는데, 그가 음악원에서 맞이했던 음악선생은 가브리엘로프, 부닌을 가르친 선생으로 유명하고, 최근 우리나라의 임동혁이 배우기도 해서 더 알려진 레프 나우모프(Lev Naumov)였다. 좋은 선생과 탄탄한 실력을 쌓은 그는 몬트리올, 볼차

노, 로마, 그리고 취리히에서 열린 콩쿠르를 휩쓸었고, 독주회는 물론 러시아의 주요 악단과 많은 공연을 해왔다. 세르바코프는 1983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 1회 라흐마니노프 콩쿠르의 우승자인데, 그 이후로 콩쿠르와 그의 이미지는 결부된다. 비평가들은 언제부터나 그를 '라흐마니노프의 재래'라는 말로 표현했다. '라흐마니노프 같다'는 표현, 그가 러시아인

이 아니더라도 피아니스트로서 받을 수 있는 극찬이다. 생전에 스비아토슬라프 리흐테르도 그의 연주에 감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그는 세밀하게 검증 받은 피아니스트라고 할 수 있다.

거의 모든음반이 최고 평가

메이저 음반사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좀처럼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르바코프는 유럽에서 꽤 인기 있는 피아니스트의 이름이다. 수많은 유럽인들은 그의 리사이틀과 그가 협연자로 등장하는 오케스트라 공연방송을 수차례 접할 수 있었다. 물론 세르바코프의 음반들도 꾸준한 인기를 누려왔다. 지금까지 그는 낙소스사와의 계약으로 적지 않은 음반들을 냈는데, 바흐, 슈트라우스, 스크리아빈, 베토벤, 레스피기, 메트너, 고도프스키, 쇼스타코비치의 음반 등 그의 음반들은 하나같이 주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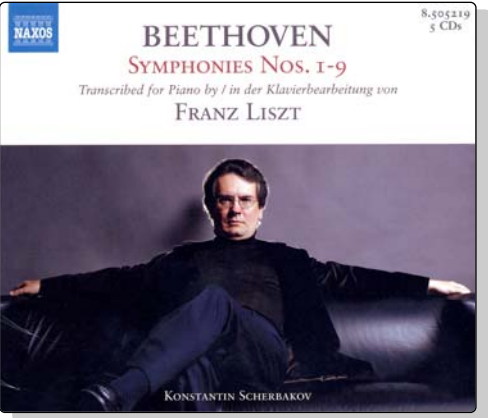
같다. 특히 마르크 폴로 음반으로 나온 고도프스키의 피아노 음악집이 비평가들의 귀를 매혹시켰던 일이 기억나며, 쇼스타코비치의 24개의 전주곡과 푸가 op.87의 연주는 어떤 전문 피아니스트의 녹음과도 당당히 겨룰 수 있는 연주였다. 그의 쇼스타코비치 연주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피아노 소나타 1번〉과 〈24개 전주곡〉을 담은 음반도 있다.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을 준수한 연주로 선보인 것도 커다란 감동이었다. 세르바코프는 야블론스키가 지휘하는 러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1번, 3번을 먼저 녹음했고, 몇 년 후 2번까지 녹음했는데, 모두 현재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연주들 사이에 끼여 있을 자격을 갖췄다. 야블론스키의 유려하고 예민한 오케스트라 운용은 그의 독주를 더욱 찬란히 빛나게 했는데, 흔히 들을 수 없는 〈협주곡 2번〉과 꼭 어울리는 희귀 커플로 등장한 〈콘서트 환상곡〉도 그야말로 환상이었다. 세르바코프의 희귀 레퍼토리에 대한 도전정신은 이탈리아 레퍼토리에서도 빛났다. 그것은 레스피기가 쓴 피아노 작품들. 특히 레스피기의 협주곡 음반으로는 현재 그의 녹음과 비교할 대상이 없다. 넘치는 에너지, 매혹적으로 조감된 선율, 본능에 가까운 정도로 빼어난 리듬이 그가 연주하는 레스피기 협주곡의 요체였다. 〈로마 3부작〉의 작곡가의 불멸의 색채감을 잘 보여준, 이 레퍼토리의 모범적인 해석으로 길이 추천받을 만하다. 독주 레퍼토리에서도 레스피기의 우아하고 예민한 색채를 그가 얼마나 발군의 실력으로 다루는가 잘 나타난다. 세르바코프는 레스피기의 〈피아노 소나타〉, 〈전주곡〉, 그리고 유명한 〈고풍의 아리아와 무곡〉등을 연주했는데, 특히 레스피기가 피아노곡으로 만든 〈고풍의 아리아와 무곡〉은 정말 우아하며 과연 두 손으로 연주했을까 싶을 정도로 탁월한 기교를 들려준다. 이밖에도 스카를라티의 〈건반음악〉등 최고의 연주라고 격찬하고 싶은 그의 음반들이 더 있다.

베토벤 교향곡의 피아노 연주 - 폭발적 인기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현재 우리 애호가들의 그의 음반에 대한 관심은 〈베토벤의 교향곡〉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베토벤 레퍼토리는 어떤 피아니스트가 내놓았더라도 애호가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이지만, 중요한 것은 연주의 질이다. 폭발적인 관심을 촉발시킨 이유다. 음반 구입을 많이 해본 애호가들은 잘 아는 사실이지만, 전집물에서 모든 음반들에 만족하는 경우란 흔치 않다. 그 점에서는 특히 안심이다. 음반들 하나하나가 고르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전집물에서 느낄 수 있는 '몇몇 개의 찐찐함'은 애초부터 없다. 그래도 어떤 연주를 베스트로 꼽고 싶으냐고 묻는다면, 2번과 4번, 5번과 9번 정도를 앞세우고 싶다. 리스트는 베토벤 오케스트레이션에서 핵심이 되는 정서를 아주 예민하게 뽑아내어 축하했다. 그래서 비록 피아노곡이지만 대곡을 들을 때처럼 특별한 긴장감과 긴밀한 음악적 감동을 선사하는 것이 중요한데, 세르바코프의 놀라운 테크닉과 음악적 재능은 그것을 모두 성취해낸다. 2번 연주도 아주 좋



피아노로 연주한 베토벤 교향곡 전곡집
굴드, 카차리스의 명연주를 위협하는 최고의 아이템
Naxos 8.505219(5CDs)

다. 날렵하지만, 타건의 음정이나 발음이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안정되어 있으며 음향까지 아주 맑아,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교향곡이지만 듣기에 매우 편하다. 2005년에 9번 〈합창 교향곡〉 음반은 독일 비평가 상을 받았는데, 단단하고 산뜻한 리듬감각으로 설득력 강한 해석을 들려주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굴드나 카차리스의 음반을 즐겨 들어왔다. 이 음반이 그들 명반들의 장점이나 특질을 온전히 능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히 그 두 사람의 연주보다 빼어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더군다나 가격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는 이 피아니스트의 이름을 잘 기억하자. 콘스탄틴 세르바코프다.

콘스탄틴 세르바코프 디스코그래피	
8.557257	TCHAIKOVSKY: Piano Concertos Nos. 1 and 3
8.554745-46	SHOSTAKOVICH: 24 Preludes and Fugues, Op. 87
8.555781	SHOSTAKOVICH: Piano Sonata No. 1 / 24 Preludes, Op. 34
8.570092	SHOSTAKOVICH: Piano Sonata No. 2 / The Limpid Stream (piano transcription)
8.225267	GODOWSKY: Piano Music, Vol. 7 - Piano Transcriptions of Bach Cello Suites Nos. 2, 3 and 5
8.554372	BEETHOVEN: Diabelli Variations
8.554842	SCARLATTI, D.: Keyboard Sonatas (Complete), Vol. 7
8.554669	RACHMANINOV: Piano Sonata No. 2 / Variations on a Theme of Chopin / Morceaux de Fantaisie, Op. 3



www.naxos.com

Naxos New Releases



Naxos 8.570291

JS 바흐:
건반작품집
(반음계환상곡과 푸가, 아리아와 변주,
프랑스풍 서곡 외)

예뇌 안도 (피아노)

낙소스 피아노파트의 터줏대감이자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피아니스트인 예뇌 안도의 바흐 작품집. 유명한 반음계환상곡과 푸가 BWV903 외에도, 골드베르크변주곡의 프로토타입 작품인 아리아와 변주곡 BWV989, 환상곡과 푸가 BWV904, 전주곡과 푸가 BWV894, 전형적인 바로크 춤곡 모음곡인 프랑스 풍의 서곡 BWV831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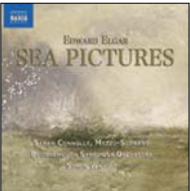


Naxos 8.557908

케루비니: 교향곡 D장조, 서곡들(메데아, 파니스카, 로도이스카)

산레모 교향악단 / 피에로 벨루지

케루비니는 레퀴엠과 오페라 <메데아> 등으로 그 명맥을 잇고있는 형편이지만, 당대에는 베토벤, 슈베르트, 로시니 등으로부터 최고의 작곡가로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케루비니의 유일한 교향곡인 D장조 교향곡은 고전적 양식미에 충실한 작품으로 이탈리아인 특유의 유려한 선율미가 돋보인다. <메데아>를 비롯한 3편의 오페라 서곡이 음반의 여백을 채웠다.



Naxos 8.557710

엘가: 바다 풍경들, 뮤직 메이커스

사라 코놀리(메조) / 본머스 심포니와 합창단 / 사이먼 라이트

<바다풍경>(Sea Pictures)은 엘가가 작곡한 유일한 관현악 반주의 연가곡이다. 감동적인 '산호초가 누운 곳'을 비롯하여 바다의 다채로운 인상들이 생성한 노래와 관현악으로 펼쳐진다. 작곡가의 자전적 작품인 <뮤직메이커스>는 R 슈트라우스의 '영웅의 생애'와 마찬가지로 작곡가의 다른 작품들의 선율들이 곳곳에 인용된 흥미로운 작품. 그라모폰 특집기사에서 차세대 기대주로 선정되었던 사라 코넬리가 참여하였다.



Naxos 8.570198

디터스도르프: 교향곡 D장조, A장조, Eb장조

리스본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 / 알바로 카스토

디터스도르프는 일개 궁정악단의 바이올린주자에서 황금양모기사단의 기사와 남작 작위를 수여받았던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수록된 세 편의 교향곡의 모든 악장을 통틀어서 디터스도르프 남작(1739-99)의 매력적인 인성과 작곡가로서의 창의성이 빛을 발한다. 세 교향곡은 모두 최초 레코딩되는 것들로 작곡가의 대표작인 '오비드' 교향곡 시리즈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완성된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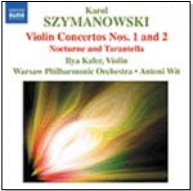


Naxos 8.559329

쿠맨: 교향곡 2번 '사랑과 비의 기도', 교향곡 3번 '아베 마리스 스텔라' 외

노라 스쿠타(피아노) 외 / 마르티누 필하모닉, 슬로박 방송교향악단 / 커크 트레버

미국의 촉망받는 청년 작곡가 카슨 쿠맨(1982년생)의 천재적인 음악성을 담은 음반. 웨이크필드의 시에서 영감을 얻은 서정적인 작품인 교향곡 2번, 동명의 그레고리안 찬트의 선율에 기초한 교향곡 3번 '아베 마리스 스텔라', 바로크 플루트의 투명한 사운드를 위한 작품인 '파르티타', 고전적인 형식미 속에 현대음악적인 내용물을 담은 피아노협주곡 등을 수록.



Naxos 8.557981

시마노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1, 2번, 야상곡과 타란텔라

일라 칼러(바이올린) / 바르샤바 필하모닉 / 안토니 비트

시마노프스키는 2편의 바이올린협주곡을 남겼다. 서정적인 1번은 절친한 친구였던 바이올리니스트 파벨 코찬스키에게 헌정된 작품으로 간명한 텍스처가 인상적인 작품. 말년작인 2번은 폴란드 산악지역의 민요로부터 소재를 얻었다. 드뷔시와 중동민속음악의 영향이 함께 느껴지는 야상곡과 타란텔라는 화려한 기교과시에 적합한 쇼피스다.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우승자 일라 칼러의 최신음반.



Naxos 8.570339

홀스트: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세인트 폴 모음곡, 밤의 노래 외

제니스 그레이엄, 사라 이원스(바이올린) 외 / 잉글리시 심포니 / 하워드 그리피스

<행성>으로 유명한 영국 작곡가 홀스트는 장기간동안 런던의 세인트 폴 여학교에서 음악감독으로 재직했었다. 당시 제자들을 위해 작곡했던 작품이 유명한 <세인트 폴 모음곡>이다. 영국 민요에 기초한 <브룩 그린 모음곡>, 바흐의 동일 포맷 작품에 비견될만한 아름다운 작품인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등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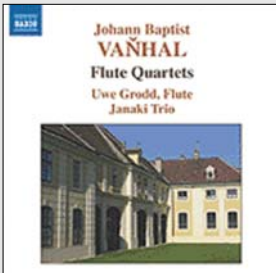


Naxos 8.557857

치아르디: 플루트를 위한 음악들(그랑 콘체르토, 베네치아의 축제 외)

로베르토 파브리치아니(플루트) / 베네치아 줄리아 오케스트라 / 스테판 프라스

체사레 치아르디(1818-77)는 당대에 '플루트의 파가니니' 라고 일컬어졌을 정도로 뛰어난 기교파 연주가였다. 자신의 기량을 과시하기위해 화려한 기교를 필요로하는 다수의 플루트 작품들을 남겼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이 본 음반에 수록된 그랑 콘체르토다. 귀에 익은 '베니스의 사육제' 선율에 기초한 스케르초, 러시아 민요를 차용한 <복족의 나이트게일> 등등 플루트 애호가들을 기쁘게할 작품들로 가득하다.



Naxos 8.570234

반할:
플루트 사중주 Op.7-2, 3, 6

우베 그로트(플루트)

재너키 스트링 트리오

체코 출신의 반할(1739-1813)은 초기 빈 고전파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성장했던 인물이다. 본 음반에 수록된 세 편의 플루트사중주는 모두 1771년 무렵에 작곡된 것들로, 우아한 선율과 플루트의 화려한 개인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매력적인 고전 실내악 작품들이다. 작년 경남공쿨에서 입상했던 한국계 캐나다 첼리스트 아놀드 최가 단원으로 있는 재나키 트리오의 낙소스 데뷔음반.



Naxos 8.570260

스페인 음악 속의 돈키호테(로드리고, 로만, 게라, 고펜바우 외)

마드리드 코무니다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 호세 라몬 엔치나

수록곡들은 모두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에서 영감을 얻었던 작품들이다. 성악이 첨가된 로드리고의 독특한 교향시 <돌시네아의 부재>, 현악합주를 위한 로만의 <돈키호테의 부활>, 1861년 세르반테스 추도일을 위한 작품인 바르비에리의 극부수음악 <돈키호테>, 1933년 무성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작곡된 게라의 <돈키호테의 세 장면>, 고펜바우의 교향시 <갑옷입은 돈키호테의 철야기도>가 수록되었다.



Naxos 8.557784

백스: 비올라 소나타, 피아노 트리오 Op.4, 전설곡 외

마틴 아웃트렘(비올라) / 로렌스 잭슨(바이올린) / 줄리언 롤튼(피아노)

백스는 7편의 교향곡과 매력적인 교향시로 유명한 작곡가지만, 실내악에서도 뛰어난 작품들을 다수 남겼다. 로맨틱한 비올라소나타는 전설적인 비올라연주자 리오넬 터티스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완성한 작품으로, 작곡가의 대표적인 실내악 걸작이다.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다른 두 소품, <전설곡>과 <콘서트 피스>, 청년기 작품인 단악장 피아노트리오를 수록.



Naxos 8.570258

틴트너: 바이올린소나타, 피아노소나타, 친구의 죽음 외

초량린(바이올린) / 헬렌 황(피아노)

82세에 자살로 생을 마무리한 비운의 작곡가 틴트너. 브루크너 전문가로 너무나 뒤늦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지만, 그 영광의 기간은 너무나 짧았다. 그는 작곡가로도 활약했다. 서정미가 돋보이는 바이올린소나타를 비롯한 그의 작품들은 독일 후기낭만음악의 색채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대만출신의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초량린과 내한공연을 통해 우리에게도 낯익은 중국계 피아니스트 헬렌황이 호흡을 맞추었다.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Op.1-1, 2,
알레그레토 WoO 39

자이리온 트리오(니나 티흐만, 이다 비에러, 마리아 크리겔)

베토벤 피아노트리오 시리즈의 두번째 음반. 전작에 이어서 낙소스를 대표하는 첼리스트 마리아 클리겔이 리더로 있는 자이리온 트리오가 연주를 맡았다. Op.1의 두 피아노트리오와 베토벤의 최초 출판작품들. 하이든의 영향이 고스란히 담긴 고전적인 스타일의 작품들이다.

Naxos 8.557724



Naxos 8.555024

로저스 & 해머스타인: 사운드 오브 뮤직, 왕과 나, 남태평양 외

리처드 해이먼과 그의 오케스트라

1902년에 태어난 작곡가 리처드 로저스와 작가 오스카 해머스타인은 브로드웨이의 황금기를 장식했던 뮤지컬계의 명콤비였다. 본 음반에는 두 사람의 공동창작작품들 중 대표적인 작품들인 <사운드 오브 뮤직>, <왕과 나>, <오콜라호마>, <남태평양>, <회전목마> 등에서 발췌한 귀에 익은 친근한 선율들을 연주곡 형태로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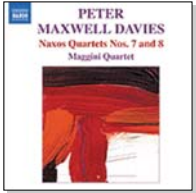


Naxos 8.557861

마르티누: 피아노 오중주 1, 2번, 2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카렐 코사렉(피아노) / 마르티누 사중주단

400여편이 넘는 마르티누의 작품 목록 중에서 실내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본 음반에 수록된 피아노오중주 1번은 작곡가가 고향 보헤미아의 민속선율에 열중하던 시절의 작품. 초기 신고전주의 영향권 안에 있던 기간을 반영한다. 2차대전 중에 완성된 보다 큰 규모의 오중주 2번은 역동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작품. 2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는 바로크 스타일의 이색적인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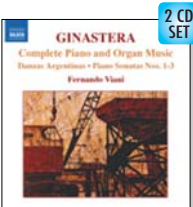


Naxos 8.557399

맥스웰 데이비스: 낙소스 현악사중주 7, 8번

마기니 현악사중주단

영국을 대표하는 현존작곡가의 한 사람인 맥스웰 데이비스가 낙소스를 위해 진행중인 낙소스 현악사중주 시리즈의 네 번째 음반. 영국 여왕 80번째 생을 축하작품인 8번은 다울랜드의 <엘리자베스의 갈리아드>에 기초한 작품. 바로크 건축가 보로미니에 대한 오마주인 7번은 바로크 모음곡의 외형을 빌려왔다. 영국 근현대 현악사중주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어왔던 마기니 현악사중주단이 연주를 맡았다.



Naxos 8.557911-12

히나스테라: 피아노, 오르간을 위한 작품 전집

페르난도 비아니(피아노 & 오르간)

아르헨티나의 히나스테라는 빌라로보스와 함께 20세기 라틴아메리카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다. 본 음반에는 작곡가가 남긴 건반(피아노와 오르간)을 위한 작품 전곡을 두 장의 CD에 나누어 담았다. 첫번째 CD에는 민요에 기반을 둔 독특한 풍미의 피아노 소품들을 담았고, 두번째 CD에는 3편의 피아노소나타와 더불어 바로크 시대의 오르간 작품을 남미식으로 독특하게 변형한 2편의 오르간 작품을 함께 담았다.



Naxos 8.557914

마르티누: 피아노작품집 Vol.1 (폭스트롯, 노엘, 우화, 8개의 전주곡 외)

조르조 쿠콜(피아노)

2월에 선보였던 2집에 이어서 1집이 뒤늦게 선보인다. 마르티누는 400여편의 작품을 남겼던 다작가였다. 그의 피아노작품은 다른 대규모 관현악의 그늘에 가려진 편이나, 재즈와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 그리고 체코 민요가 복합적으로 혼재된 독특한 스타일의 흥미로운 피아노작품들을 다수 남겼다. 인상주의의 영향이 느껴지는 <정원의 창문>, 재즈적인 <3개의 스케치>등을 수록.



Naxos 8.660179-82

바그너: 신들의 황혼

여러 가수들 / 슈투트가르트 슈타츠오페 / 로타르 자그로섹

바그너가 완성한 거대한 스케일의 4부작 '니벨룽의 반지' 중 마지막 작품인 '신들의 황혼'. 거대한 4부작 드라마의 대단원답게 바그너 특유의 목직한 관현악법과 가수들의 초인적인 열창이 4시간이 넘도록 장대하게 이어진다. '새벽과 라인 여행', '장송행진곡', '브륄힐데의 자기 희생' 등은 독립적으로도 자주 연주되는 부분들이다. 영상물로도 크게 호평을 얻었던 슈투트가르트 슈타츠오페의 2003년 프로덕션을 옮긴 것.



Naxos Historical, Jazz Legends



Naxos 8.111244

슈만: 시인의 사랑, 여인의 사랑과 생애 / 슈베르트: 겨울나그네(발취)

로테 레만(소프라노) / 브루노 발터, 폴 올라노프스키(피아노) 1941년 녹음

1941년 53세의 로테 레만은 목소리의 윤기가 퇴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륜을 머금은 잿빛 음색을 바탕으로 독일 리트에서 자신의 새로운 음악 캐리어를 한층 더 발전시켰었다. 수록곡 중 슈만의 <시인의 사랑>과 <여인의 사랑과 생애>에서는 거장 브루노 발터의 피아노 반주 솜씨를 만나볼 수 있다.



Naxos 8.111260

엘가: 교향곡 2번, 첼로협주곡 (1927, 28년 녹음)

베아트리체 해리스(첼로) / 런던 심포니, 뉴 심포니 / 에드워드 엘가

엘가 자작자연 시리즈의 두번째 음반. 작곡가의 두 대표적 관현악 걸작인 교향곡 2번과 첼로협주곡을 함께 담았다. 특히 첼로협주곡은 뒤프레에 앞서서 이 곡을 유명하게 만든 첫번째 장본인이었던 여류 첼리스트 베아트리체 해리스가 독주를 맡았던 역사적인 명연주다.



Naxos 8.111254

J 슈트라우스 2세: 베니스에서의 하룻밤 (1954년 녹음)

슈바르츠코프, 게다, 쿤츠 외 / 필하모니아 / 오토 약케르만

레하르의 두 작품(메리위도우, 미소의 나라)과 슈트라우스의 박쥐에 이어 슈바르츠코프의 명연기를 만끽하게 되는 또 하나의 빈 오페레타. 니콜라이 게다, 에리히 쿤츠 등 당대의 명가수들과 함께 흥겨운 빈 선율의 한 마당을 펼친다.



Naxos 8.120847

뮤지컬 <키스멧>

1953년 오리지널 캐스트 레코딩

뮤지컬 <키스멧>은 러시아 5인조이 대표적 작곡가 알렉산더 보로딘이 남긴 아름다운 선율들을 재구성한 매력적인 작품. 특히 콜로베치안 댄스와 현악사중주 2번 로망스 등의 선율을 조합했던 <Stranger in Paradise>는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불멸의 히트곡이다.



Naxos 8.120822

Django Reinhardt Vol.10

Belleville Original 1940-1942 Recordings

집시의 혈통을 이어받은 전설적인 재즈 기타리스트 장고 라인하르트는 어려서 사고로 두 손가락을 잃었음에도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자신만의 독특한 연주를 들려주었다. Belleville / Blues en mineur / Chez moi a six heures / Crepuscule / De nulle part / Dinette / Distraction / Django Rag / Feerie / Hungaria / Lentement, Mademoiselle / Mixture / Ninouche / Nymphéas / Petite Lili / Place de Broucker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www.lpo.co.uk

LPO



LPO 0016-20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엘가의 관현악작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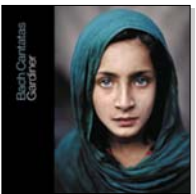
교향곡 1,2번, 첼로협주곡, 바이올린협주곡, 수수께끼변주곡, 바다풍경, 전주곡과 알레그로, 코케인 서곡, 엘레지, 세레나데, 팔스타프, 프르와사르 서곡, 밤의 노래, 아침의 노래, 제국행진곡, 대관식행진곡, 남쪽에서, 쾌활한 팬 폴 토르틀리에(첼로) / 알프레도 캄폴리(바이올린) / 자넷 베이커(알토) /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에드워드 엘가, 랜든 로날드, 애드리언 볼트, 게오르그 솔티, 찰스 맥캐라스, 버논 핸들리

엘가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여 작곡가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오케스트라인 런던 필하모닉이 정성껏 준비한 아주 특별한 음반. 작곡가의 대표적인 관현악 작품들을 5장의 CD에 담았다. 작곡가가 직접 지휘봉을 잡았던 엘레지, 세레나데, 프르와사르 서곡 외에도 엘가의 절친한 친구이자 20세기 초의 명지휘자였던 랜든 로날드가 지휘한 대관식행진곡을 만날 수 있으며, 솔티가 지휘한 교향곡 1번과 코케인 서곡, 맥캐라스가 지휘한 수수께끼변주곡, 핸들리가 지휘한 교향곡 2번과 바다풍경 등등 최고의 명연들을 간주했다. 두 협주곡에서는 폴 토르틀리에와 알프레드 캄폴리를 애드리언 볼트가 반주하였으며, 바다풍경에서는 영국의 국보급가수 자넷 베이커의 절창을 만날 수 있다. 5장의 CD를 4장의 가격으로 제공.



www.monteverdi.co.uk/recordings

Soli Deo Gloria(SDG)



SDG 128

바흐 칸타타 순례 Vol. 22 (부활절 기간을 위한 칸타타들)

그리스도는 죽음의 포로가 되어도 BWV4
저녁이 되리니 나와 함께 있으라 BWV6
하늘은 웃고 땅은 환호하도다 BWV31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BWV66
살아계신 주 예수를 믿는 마음 BWV134
내 마음이며, 너를 위해 나는 사내 BWV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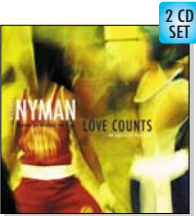
영해러드 그루피드 존스, 질리안 키스(소프라노) / 다니엘 테일러(카운터테너) / 제임스 질크리스트(테너) / 스티븐 바코(베이스) / 몬테베르디 합창단 /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 / 존 엘리엇 가디너

가디너의 바흐 칸타타 순례 22집은 2000년 4월 23-25일, 바흐가 태어난 곳인 아이제나흐에서 있었던 공연을 수록한 것으로, 부활절 기간을 위한 칸타타 6곡을 수록하였다. 공연장소는 바흐가 세례를 받았고 소년 시절 성가대원으로도 활동한 곳인 성 게오르그 교회. 특별한 장소에서 펼쳐지는 공연인만큼 가디너의 지휘와 연주자들이 합창 모두가 최고의 완성도를 보여준다. 아름다운미성의 소프라노 질리안 키스, 캐나다 출신의 일급 카운터테너 다니엘 테일러, 바흐 칸타타 스페셜리스트로 등극한 테너 제임스 질크리스트, 관록의 베이스 스티븐 바코로 이어지는 솔로이스츠의 면면 역시 대단히 화려하다. 바흐 초기 칸타타이 대표적인 걸작인 <그리스도는 죽음의 포로가 되어도>를 비롯한 여섯 편의 칸타타가 부활절의 기쁨과 감동을 더욱 송고하게 이어줄 것이다.

MN Records
www.mnrecords.com

MN Records

MN Records는 칸느 영화제 대상수상작인 제인 캠피언 감독의 영화 <피아노>로 극제적인 영화 음악작곡가로 급부상한 영국 작곡가 마이클 니만이 설립한 독립 레이블이다. 신보는 물론 그간 데카와 EMI를 통해 선보였던 니만의 대표적인 명반들 역시 앞으로 MN Records를 통해 만날 수 있다.



MNRCD 111/112

니만: 러브 카운츠 (2막 오페라)

헬렌 윌리엄스(sop) / 앤드류 슬래터(bass) / 마이클 니만 밴드 / 폴 맥그래스
<피아노>의 작곡가 마이클 니만이 자신있게 내놓은 최신 오페라. 2005년 초연된 2막 오페라 <러브 카운츠>는 베스트셀러작가 마이클 해스팅스의 대본을 기초로 완성한 작품으로 대학 수학강사이자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의 아픔을 겪은 에브리릴과 숫자를 모르는 은퇴를 앞둔 권투선수 패치 사이의 사랑이야기를 내용으로 한다. 니만은 이 작품 속에 바흐의 코랄 선율을 중요한 음악적 매개체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중성에 철저히 기반을 둔 니만의 음악은 현대 오페라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한번에 날려줄 것이다.

DACAPO

www.dacapo-records.dk

DACAPO



Dacapo 6.220521

닐센: 현악사중주 Op.13 & 44, 현악오중주 (Hybrid-SACD)

영 데니쉬 스트링 콰텟 + 팀 프레데릭센 (비올라)
덴마크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작곡가 칼 닐센은 교향곡과 오페라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자신의 음악적 개성을 표출하였다. 본 음반에 수록된 2편의 현악사중주와 그의 유일한 현악오중주는 그가 남긴 실내악 작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4명의 실내 연주자들이 모여서 결성한 영 데니쉬 사중주단은 트론틀하임 실내악 콩쿠르, 덴마크 음악평론가 상 등을 석권하면서 나이를 초월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단체다.



Dacapo 6.220520

부스테후데: 오르간 작품 전집 Vol. 5 (Hybrid-SACD)

비네 브린도르프 (함부르크 성 야코비 교회 오르간)
남독일의 파헬렐과 북독일의 부스테후데는 17세기 독일음악계를 양분했던 오르간의 거장들이었다. 특히 부스테후데는 청년 바흐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로 유명하다. 다카포의 부스테후데 오르간 작품 시리즈의 5번째 음반인 이번 신보에는 두 편의 마그니피카트와 테 데움, 5편의 코랄 전주곡 등 종교적 색채가 충만한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작곡가가 청년시절 슈나이더만을 사산한 장소였던 함부르크의 성 야코비 교회의 오르간의 고아한 사운드가 일품이다.

OUR Recordings
www.our-recordings.com

OUR Recordings

OUR Recordings는 세계적인 리코더 연주자 미칼라 페트리와 기타리스트 라스 한니발 부부가 설립한 덴마크 소재의 독립 레이블이다.



OUR 8.226901

SPIRITS (중국 대나무피리로 연주하는 각국의 민요와 클래식)

첸 유엔(시아오) / 라스 한니발(기타)
중국의 전통 대나무 피리인 시아오(Xiao)는 우리의 대금과 거의 유사한 소리를 들려준다. 6곡의 중국 전통 민요를 비롯, 영국, 스페인, 헝가리, 일본의 민속선율, 그리고 G선상의 아리아, 비발디 사계 중이 겨울 2악장, 여름의 마지막 장미, 집시의 달과 같은 귀에 익은 선율들이 이 자연친화적인 악기의 독특한 사운드를 통해 새로운 느낌으로 다시 태어났다.



www.mdg.de

Musikproduktion

Dabringhaus und Grimm[MD&G]



MDG 309 1450-2

텔레만: 콘체르토와 체임버 뮤직 Vol. 5

무지가 알타 리파
바로크 애호가들의 큰 관심 속에 진행 중인 무지가 알타 리파의 텔레만 시리즈의 다섯 번째 음반. 수록된 6편의 작품은 각국의 음악장르를 적극 수용했던 이 작곡가의 개방적인 취향을 반영하듯 저마다 제각각의 외형을 갖추고 있지만, 그 내면에 담긴 유희적인 속성은 텔레만의 전형성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4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솔로 리코더가 눈부시게 활약하는 4중주와 파르티아, 전형적인 바로크 춤곡 모음곡인 서곡 등을 수록.



MDG 603 1429-2

알베르트: 8개의 기타 이중주곡

하인리히 알베르트 듀오
하인리히 알베르트는 20세기전반기에 활동했던 독일의 기타음악 작곡가들 중 가장 돋보이는 이름이었다. 그가 1915~7년에 완성한 8곡의 기타 이중주는 그의 기타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작품들로 내용적으로는 독일 후기낭만음악의 이디엄을 충실히 반영함과 동시에 기타의 기교적인 특성 또한 적극 활용한 작품들이다.



MDG 618 1448-2

로시니: 피아노 작품집 Vol. 8

슈테판 이르머 (피아노)
슈테판 이르머의 로시니 피아노작품 시리즈의 여덟번째이자 마지막 음반. '몇 가지 모자란 것들'은 작곡가가 만년의 20년 동안 파리에서 작곡한 성악곡, 기악곡, 세속적 또는 종교적인 작품을 망라한 방대한 작품집이다. 신보는 그 중에서 19편의 개성만점의 소품들을 수록하였다. 저마다 재미있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이 작품들은 작곡가의 넉넉한 유머감각을 대변한다.



MDG 334 1137-2



MDG 642 1416-2

브람스: 독일 레퀴엠

시리 카롤린 톤힐(sop) / 클라우스 메르텐스(bar) / 브레멘 성당합창단 / 브레멘 캄머신포니 / 볼프강 헬비히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은 1867년 빈에서 첫 세곡이 연주되었고, 1868년 작곡가의 지휘로 소프라노 솔로를 제외한 전곡이 브레멘 성당에서 초연되었다. 브레멘 성당에서의 연주를 담고 있는 이 음반은 130여년전의 감동을 재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곡의 핵심을 짚어내는 헬비히의 지휘는 구조적인 긴밀함을 더해주며, 차분한 솔로이스트들의 가창과 투명한 울림을 전해주는 캄머 신포니 브레멘의 반주가 돋보인다.

장 마리 롱데이 – 포트레이트 (4장을 2장 가격에...)

색소폰을 위한 근현대 작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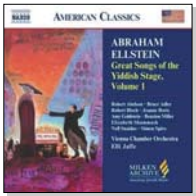
장 마리 롱데이(1932년생)는 클래식 장르안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색소폰 연주자였다. <프랑스 색소포니스트 협회>와 <국제 색소폰 회의>의 창립자였으며, 각국의 유명작곡가들로부터 100여편의 다양한 작품들이 그에게 헌정되었다. 1957년부터 1995년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의 녹음들을 집대성한 이 음반에는 드뷔시, 힌데미트, 이베르, 슈미트, 뒤브와, 미요, 테니소프, 쇠홀른, 모리스 등의 작곡가들의 다양한 색소폰 작품들이 총망라되었다.

아메리카 유태음악의 뿌리를 찾아서

낙소스의 밀켄 아카이브 Milken Archive

유태인계 미국인의 음악의 역사도 어언 350년의 긴 세월 속에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음악가들이 알고 보면 유태인인 경우가 자주 있다. 조지 거쉰, 쿠르트 바일, 레너드 번스타인, 다리오스 미요 등을 쉽게 떠오르는 유태인 음악가로 꼽을 수 있겠는데, 낙소스 아메리카에서는 본격적으로 유태인계 미국인 작곡가의 음악을 시리즈로 묶어 내었다. 낙소스 아메리카에서 출판되긴 했지만 그 주체가 되는 것은 '밀켄 아카이브'이다.

유태인 사업가 로웰 밀켄과 그의 가족들은 오랫동안 유태인들을 위한 사업들을 펼쳐왔다. 교육이나 복지, 그리고 유태문화의 보존 등에 힘을 기울이는 이들의 행보로 볼 때 유태인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망라하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들은 근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30여 종에 이르는 음반을 선보였다. 물론 모두가 새로운 레코딩이며, 내용 또한 다양하다.



Naxos 8.559405

ELLSTEIN : Great songs of the Yiddish stage Vol.1

Simon Spiro & Benzion Miller, tenor / Amy Goldstein & Nell Snaidas, soprano etc. / Vienna Chamber Orchestra/Elli Jaffe, conductor

이 CD는 누군가에게는 추억의 오솔길을 따라가는 향수의 여행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는 빛나던 유태시대의 풍성한 보물들의 진정한 발견이 될 것이다. 연주 역시 놀랍다. -Jerry Dubins Fanfare 2003/11-12



Naxos 8.559406

Introducing the world of American Jewish music
Best tracks from the albums of Milken Archive Series

이 CD는 앞으로 등장할 밀켄 아카이브 시리즈에 대한 훌륭한 입문음반이다. 앞으로 등장할 이 시리즈의 음반들을 기대하게 만든다. 여기에 담긴 모든 연주는 최고수준이다. -Fanfare 2003/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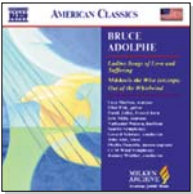


Naxos 8.559412

DIAMOND : Ahava-Brotherhood

Seattle Symphony / Gerard Schwarz, conductor etc

이번에 최초로 녹음되는 다이아몬드의 성악곡 'AHAVA'는 구약의 예언서, 중세 스페인 유대인들의 시를 비롯하여 프랭클린, 와싱턴 등의 미국 초기 정치가들의 글까지 다양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만든 작품. 함께 수록된 다이아몬드, 모턴 굴드, 로이 해리스, 더글러스 무어, 4작곡가의 종교작품들 역시 이번에 최초로 녹음된 곡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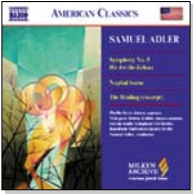


Naxos 8.559413

ADOLPHE : Ladino songs of love & suffering

Lucy Shelton & Erie Mills, soprano / John Aler, tenor
Seattle Symphony / Gerard Schwarz, conductor etc.

2005년 그래미상 올해의 클래식 프로듀서(데이빗 프로스트) 수상작1492년 이베리아반도로부터 유태인들이 대량 추방되던 때에 만들어진 시들이 혼 반주의 독특한 가곡으로 변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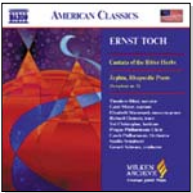


Naxos 8.559415

ADLER : Symphony No.5

Runfunk Sinfonieorchester Berlin / Slovak Radion Philharmonic / Samuel Adler, conductor etc

미국 현대음악계의 거물 사무엘 아德勒의 자작자연음반미국 현대작곡계의 거물이자 저명한 음악교육자인 사무엘 아德勒(1928년생). 자신의 뿌리인 유태전통음악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였다. 음반에는 그의 작품들 중에서 유태색채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작품들이 다양한 장르에 걸쳐 수록되었다. 작곡가 자신의 지휘가 음반의 권위를 보장한다.



Naxos 8.559417

TOCH : Cantata of the Bitter Herbs, Jephta
- Rhapsodic poem (Symphony No.5)

Czech Philharmonic & Seattle Symphony / Gerard Schwarz, conductor etc

슈워츠의 지휘는 감동적이며, 체코 필과 프라하 합창단의 연주는 우수하다. 바이켈의 나레이션은 품위있게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두 작품 모두 녹음이 우수하다. -Americal Record Guide 2004/0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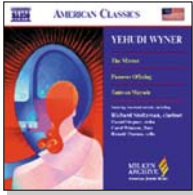


Naxos 8.559421

BEN-AMOTS : Celestial Dialogues

BBC singers/Barcelona Symphony / Karl Anton Richenbacher, conductor etc

현대 작곡가의 손으로 거듭난 유태전통음악. '성스러운 대화' (Celestial Dialogue)는 유태 음악의 두 가지 전통인 클레즈머 음악(클라리넷이 중심이 되는 동유럽 유태밴드의 기교적형태의 전통기악음악)과 칸토르 보컬음악이 결합된 형태의 민족색채가 농후한 작품. 세계 최초 녹음.



Naxos 8.559423

WYNER : Passover Offering, Tants un Maysele, The Mirror

Judi Brown Kirchner, mezzo-soprano / Matthew Kirchner, tenor / Richard Stoltzman, clarinet / David Taylor, trombone / Carol Wincenc, flute / Yehudi Wyner, piano

2005년 그래미상 올해의 클래식 프로듀서(데이빗 프로스트) 수상작2005년 그래미상 올해의 클래식 실내악 후보작미국의 대표적인 현대작곡가인 와이너가 유대전통음악인 클레쯔머 스타일로 작곡한 작품들.



Naxos 8.559432

Great Songs of the Yiddish Stage Vol.2

Simon Spiro & Ben Zion Miller, tenor
Amy Goldstein & Nell Snaidas, soprano etc.
Vienna Chamber Orchestra
Elli Jaffe, conductor

1938년 미국 히트 퍼레이드 No.1을 기록하였던 'Bay Mir Bistu Sheyn'을 비롯하여 'Mayn Yidishe Meydle' 등의 유명 유대노래들을 역사적인 고증을 바탕으로 한 반주와 유대계 가수들의 진솔한 새 녹음으로 담았다.



Naxos 8.559460

SPIRO, Simon: Traditional Cantorial and Concert Favorites

Amy Goldstein, soprano / Simon Spiro, cantor / New York Cantorial Choir / Neil Levin, conductor

현존 최고 유대 칸토르의 음악세계가 이 음반에 농축되었다. 유대 칸토르 보컬 음악의 대가 시몬 스피로의 음반. 대대로 칸토르를 이어나갔던 독일계 유대인 가문 출신인 그는 정통 이디시 송, 유대 전례음악은 물론 현대 유대 작곡가들의 창작곡들에서도 발군의 능력을 보여주는 아티스트이다.



Naxos 8.559424

JEWISH OPERAS, VOL. 1 Chelm: Scenes 2-5, The Dybbuk (excerpts), The Golem, Act II: Finale

Various Artists

세 편의 오페라에 담긴 옛 유대인들의 영웅담. 이 음반에 수록된 세 명의 20세기 유대계 미국 작곡가들의 오페라에는 시대를 초월한 유대 전설들과 영웅적인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Naxos 8.559457

WEINBERG : Piano Concerto No.2, String Quartet, Shabbat Ba' aretz

Jorge Federico Osorio, piano / Barcelona symphony / Karl Anton Rickenbacher, conductor / Bingham Quartet

20세기 중반에 완성된 로맨틱 피아노협주곡. 이 음반에 세계최초로 녹음된 와인버그의 피아노협주곡 2번은 1944년에 완성된 작품임에도 낭만음악의 서정성과 열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현악사중주와 전례음악 '안식일 오전 전례' 역시 이전 세기의 잔영이 짙게 드리워진 로맨틱한 작품들이다.



Naxos 8.559425

WEISGALL: T' kiatot / Psalm of the Distant Dove / A Garden Eastward

Barcelona Symphony-National Orchestra of Catalonia / Seattle Symphony Orchestra / Gerard Schwarz, conductor / Avner Itai, conductor

유대전통음악과 무조음악의 독특한 결합체. 후고 웨이스갈은 쇤베르크, 베르크, 베베른이 정립한 무조음악과 유대인들의 음악전통을 효과적으로 접목시켰던 작곡가였다. 그의 관현악결작인 '트키아토트'에는 유대 전례에 사용되던 양뿔피리의 사운드가 효과적으로 삽입되었다. '동쪽정원'은 작곡가 스스로 가장 아름답다고 언급했던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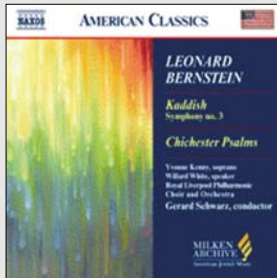


Naxos 8.559442

Various Composers: Genesis Suite

Berlin Radio Symphony / Gerard Schwarz

2005년 그래미상 올해의 클래식 프로듀서(데이빗 프로스트) 수상작2차대전을 피해 미국으로 몸을 피했던 7명의 유명 유대계 작곡가(쇤베르크, 실크렛, 탄스만, 미요, 카스텔누오보 테데스코, 토흐, 스트라빈스키)들이 창세기를 소재로 만든 협력 오라토리오.



Naxos 8.559456

Bernstein: Symphony No.3 Chichester Psalms

Royal Liverpool Philharmonic

Gerard Schwarz

번스타인의 세번째 교향곡은 유대인들의 추도 기도문을 뜻하는 '카디쉬'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으로서의 작곡가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작품. 작곡가의 가장 인기있는 종교합창곡인 '치체스터 시편'이 함께 수록되었다.



Naxos 8.559439

유대 춤곡 음악들 (울프, 미요, 사민스키, 스테인)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 바르셀로나 심포니 / 제러드 슈워츠, 조셉 실베스타인 외

유명 유대계 작곡가들의 춤곡들을 모은 음반. 스테판 울프의 발레 '미디안에서 온 사람'에서 발췌한 관현악 모음곡은 최초 녹음되는 것이다. 프랑스 육인조의 일원이었던 다리우스 미요의 발레 '모세'에서 발췌한 화려한 모음곡, 러시아 출신의 유대계작곡가 사민스키의 오페라 발레 '아리엘의 환상'의 두 장면, 시카고 출신의 젊은 작곡가 레온 스테인의 3개의 유대춤곡(Hassidic Dances)을 수록.



Naxos 8.559455

조셉 럼신스키와 동료들 (유대 무대 음악 Vol.3)

시몬 스피로(테너) / 에미 골드스타인(소프라노) / 브루스 애들러(테너) 외

유대 음악극장, 라디오, 영화, 보드빌 무대 등의 전성기를 장식하던 유대 노래들을 담은 세번째 음반. 이런 장르의 상징적인 이름이었던 조셉 럼신스키(1881-1956)와 그 동료들의 대표곡들을 수록하였다. 샌티멘탈하면서도 흥겨운 이들 노래들은 자신들이 떠나온 구세계에 대한 노스텔지아와 고통, 새로운 땅에서의 희망 등을 이면에 깔고 있다.



Naxos 8.559451

JEWISH STRING QUARTETS (Milhaud, Binder, Schonthal, Zorn, Secunda)

Juilliard Quartet / Bingham Quartet / Bochmann Quartet

프랑스 6인조의 일원인 미요의 에튀드는 프로방스 지방 유대인 사회의 전통음악에 기반을 둔 작품. 유명한 줄리어드 사중주단이 연주를 맡았다. 세쿰다의 곡은 러시아 유대인의 전례음악을 차용한 작품이며, 손달의 곡은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를 기리는 추도곡이다. 존의 쿨 니드라이는 유명한 유대찬가의 선율을 사용하였다.



Naxos 8.559444

자이몬트 :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 안식일 저녁을 위한 전례

제임스 막달레나(bass) / 제러드 슈워츠 /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외

주디스 자이몬트(1945년생)는 독특한 음악스타일로 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여류작곡가다. 본 음반에는 독창자, 합창단 그리고 관현악단을 위한 안식일 저녁 전례음악의 아름다운 콘서트 버전과 함께 구약의 유명한 이야기를 극적으로 묘사한 음악드라마 ‘아브라함과 이삭’, 현악사중주 반주의 성악곡 ‘발로의 여인’, 제목 그대로 평온한 한 순간을 만드는 ‘새해를 위한 명상곡’을 담았다.



Naxos 8.559436

데이빗슨: 천사의 노래, 주 앞에서 다윗이 춤췄네, 바로크모음곡

Finchley Children's Music Group / Buffalo Vocal Ensemble / Ramon Ricker Jazz Quintet / Brad Lubman, conductor / Nicholas Wilks, conductor

유대계 미국작곡가 찰스 데이빗슨의 합창음악들은 바로크 음악에서 유태 포크음악, 재즈 등에 이르는 폭넓은 음악영역들이 효과적으로 결합되어있다. 어린이합창단을 위한 유대민속음악 편곡인 ‘천사의 노래’, 재즈와 블루스 풍의 성악곡 ‘다윗은 춤추었네’, 바로크 시대의 춤곡 모음곡의 외형을 빌린 어린이 합창곡 ‘바로크 모음곡’ 등의 개성만점의 작품들을 담았다.



Naxos 8.559440

헬프만: 합창교향시 ‘새로운 유대설화’, ‘첫 수확절’, ‘성계’ 발췌

디어도어 비켈(남송), 남부 캘리포니아 합창 소사이어티, 닉 스트림름 / 영 뮤지션스 파운데이션 데뷔 오케스트라 외

맥스 헬프만(1901-1963)은 작곡가, 합창지휘자,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유명한 음악캠프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음악교육자로서 미국 유대음악계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다. 1948년 작품인 대편성 합창곡인 ‘새로운 유대설화’는 바로 5년 앞서 벌어진 바르샤바 유대게토의 처절한 붕괴를 드라마틱하게 음악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이 음반은 이 작품의 세계최초녹음. 그밖에 전형적인 유대종교합창곡들인 ‘첫 수확절’ 전곡과 토라 전례 ‘성계’의 단편이 함께 수록되었다.



Naxos 8.559443

와이너: 유대 노래의 예술

여러 가수들 / 예후디 와이너 & 배리 스나이더(피아노)

라자르 와이너(1897-1982)는 오늘날 유대 아트 송 장르의 가장 탁월한 작곡가로 기억된다. 50년이 넘는 기간동안 200여 편 이상의 노래들을 남겼는데, 유대음악의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음악예술적인 측면에서도 꽤나 출중한 것들이었다. 유대 아트 송은 1910년대 시작된 장르로 구식이 되어버린 전통유대민요를 대신하여 이 다사다난했던 민족의 감성을 채워주었던 새로운 위안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다. 본 레코딩에는 작곡가의 아들이자 현역 작곡가인 예후디 와이너가 직접 피아노반주를 맡아서 음반의 완성도를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Naxos 8.559422

스톡: 작은 기적, 이즈코르, 테키아, 이루사

엘리자베스 삼마쉬(메조) / 리처드 스톨츠만(클라리넷) / 스티븐 번즈(트럼펫) / 제러드 슈워츠(지휘) /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 시애틀 심포니

메조소프라노 솔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스톡의 드라마틱 칸타타 ‘작은 기적’은 나치 치하의 유대인 학살을 피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부모와 아이의 애절한 사연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유대 전통음악에 기반을 둔 나머지 두 기악 작품에서는 모리스 앙드레 쿵쿠르 우승자인 트럼펫터 스티븐 번즈와 세계 정상급의 스타 클라리네티스트 리처드 스톨츠만의 화려한 개인기가 빛을 발한다.



Naxos 8.559446

베를린스키: 아버지의 세계로부터, 심포닉 비전, 쇼파르 전례

BBC 싱어즈 / 제러드 슈워츠(cond) / 시애틀 심포니 외

라이프치히와 파리를 거치며 음악을 배웠던 헤르만 베를린스키(1910-2001)는 미국으로 건너온 이후 작곡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로 활약하였다. 그의 음악은 유대음악의 전통을 후기낭만주의적인 서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 음반은 유대회당을 위한 작품인 ‘쇼파르 전례’, 유대색 질은 일반 콘서트용 관현악곡 두 편, 그리고 오르간작품 ‘불타는 떨기나무’를 수록하였다.



Naxos 8.559445

기쁨과 슬픔의 시편들 (글래스, 왁스맨, 와이너, 드럭맨, 록버그 외)

여러 아티스트들

구약의 시편은 유대교 종교음악의 근간이 되는 텍스트였다. 본 음반에는 미국에서 활동했던 여러 유대계 작곡가들이 작곡한 시편 가사의 종교적 합창곡들이 수록되었다. 필립 글래스의 미니멀한 시편 126편, 와이너의 시편 96편, 왁스맨의 시편 23편, 질베츠의 시편 137편 등등 저마다의 독특한 음악적 서법과 개성으로 빛어낸 다양한 스타일의 합창곡들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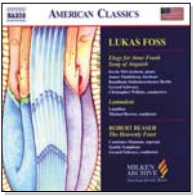
Naxos 8.559450

유태 오페라의 명장면 2집

(쉬프: <바보 짐펠>, 지그마이스터: <호수의 여인>, 와이스겔: <에스터>)

여러 가수들 / 시애틀 심포니 외 / 제러드 슈워츠 외

버나드 말라무드와 노벨 수상자 아이작 싱어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유대 작가들이다. 동유럽 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담은 쉬프의 <바보 짐펠>은 바로 싱어의 작품을 토대로 만든 오페라. 지그마이스터의 <호수의 여인>은 말라무드의 작품에 기초하였다. 구약에 기초한 와이스겔의 <에스터>는 90년대에 완성된 가장 중요한 미국 오페라로 평가받았던 걸작이다.



Naxos 8.559438

FOSS : Elegy for Anne Frank

James Maddalena, baritone / Rundfunk Sinfonieorchester Berlin / Gerard Schwarz, conductor etc

수많은 하이틴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안네 프랑크의 일기’, 미국 현대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루카스 포스가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음악으로 옮겼다. 선지자 이사야의 이야기를 극적으로 표현한 ‘고통의 노래’ (Song of Anguish)도 주목할만한 작품.



Naxos 8.559452

이스라엘의 종교전례 음악들 (벤 하임, 라브리, 브라운)

에른스트 젠프 합창단 /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 요엘 레비 & 제러드 슈워츠

음반에 수록된 세 작곡가(벤 하임, 라브리, 브라운)의 유대전례음악은 모두 미국에서 완성 및 초연된 작품이지만, 자신들의 마음의 고향인 이스라엘의 전통 전례음악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중동의 이국적인 선율들은 서구의 클래식 음악전통을 통해 보다 세련된 형태로 표현되었다. 독일의 정상급 합창단인 에른스트 젠프 합창단과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탁월한 연주력이 음반의 완성도를 높였다.

무소유의 행복을 설파하는

법정스님 오디오북 연꽃향기를 들으면서



5월 가정의 달 특선,
성우가 스님을 만나다.

성우 김세원이 전하는
법정스님의 말씀.
잔잔한 클래식 음악의 감동...
가슴 깊이 와 닿는
진리의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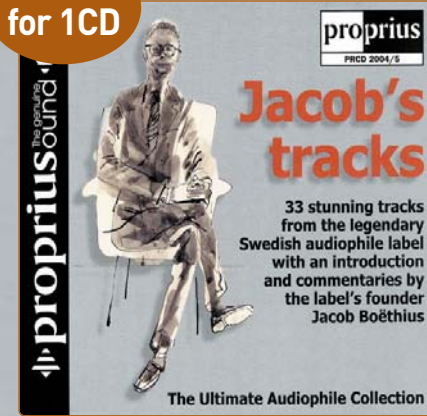
우리 시대 진정한 어른이며 언제나 맑게 정제된 언어로 진리를 설파하는 법정스님. 이제 그분의 귀한 말씀을 성우 김세원의 낭독으로 듣게 되었다. 한국 최고의 베테랑 성우 김세원은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배경으로 스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전달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심금을 울린다. 우선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들의 어머니에 대한 사색이 가슴을 찡하게 하고, 스님이 늘 주장하시는 무소유 혹은 적게 소유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이치, 어떻게 행복한 삶이 가능한가 등에 대한 성찰을 담았다. 김세원의 차분하고 이지적인 음성과 잘 어우러지는 클래식 음악이 너무도 아름답고 스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마음속 깊이 사무친다. 보석처럼 빛나는

진리의 말씀들!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면 좋다.



야콥의 트랙들 Jacob's tracks

2CDs
for 1CD



PRCD 2004-2005
Audiophile CD

- 다양한 레퍼토리, 놀라운 음향, 그리고 최고의 연주들!
- 프로피리우스 30주년 기념, 궁극의 오디오파일 컬렉션 2CD
- 오디오파일 음반의 전설 프로피리우스 사운드
- 레이블의 창립자 야콥 보에티우스가 직접 뽑은 33개의 트랙
- 오디오 마니아와 음악애호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최고의 음향과 레퍼토리
- 자연스럽고 생생한(natural & real) 고 음질 사운드의 진수

독일 최고 음향 전문회사 MDG가 내놓은
오디오파일용 Hybrid SACD Sampler

Inspirations 영감의 음악들



- 디지털이 꿈꾸는 이상향, 궁극의 음향세계!
- 독일 최고의 톤마이스터 회사 엠데게가 내놓은 SACD 오디오파일
- 자연스러움의 극치, LP가 부럽지 않다!
- 스튜디오 녹음을 하지 않는 회사의 녹음철학이 그대로
- 오케스트라 악기들이 선명하게 파악되는 초고음질
- 최고의 평가를 받은 SACD 레퍼토리에서 엄선!
- 일본 그라모폰, 스테레오 리뷰에서 최고의 평가

MDG 906 1449-6
Hybrid Multichannel Super Audio CD

TDK DVD



TDK DVWW-COMARG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함께 하는 피아노의 저녁 A Piano Eveinign with Martha Argerich

마르타 아르헤리치, 피아노
르노 카푸송, 바이올린 / 고티에르 카푸송, 첼로
알렉산더 라비노비치-바라코프스키, 지휘
플란더즈 심포니 오케스트라

[프로그램]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1번 '클래식', 피아노협주곡 1번
슈만: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베토벤: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를 위한 트리플 콘체르토

2005년 25회 La Roque d'Antheron International Piano Festival 실황.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여류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차세대 거장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프랑스의 형제 음악가 르노 카푸송과 고티에르 카푸송의 열연을 뛰어난 고해상도의 화면과 DTS 서라운드의 입체음향으로 만나게 되는 최고의 기회.

프로코피예프의 교향곡 1번 '클래식'으로 시작되는 이 특별한 콘서트는 아르헤리치가 독주를 맡은 같은 작곡가의 피아노협주곡 1번으로 열기를 더해간다. 이어지는 작품은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르노 카푸송의 참신한 패기와 아르헤리치의 노련한 원숙미가 만들어내는 절묘한 조화가 이채롭다.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하는 작품은 베토벤의 삼중협주곡. 카푸송 형제와 아르헤리치가 최고의 앙상블을 만들어낸다.

[보조자료]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의 아담한 소도시 라 로크 당테롱(La Roque d'Antheron) 이 작은 도시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1981년부터 시작된 라 로크 당테롱 피아노 페스티벌 때문이다. 매년 여름이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앞 다투어 이 작은 도시를 방문하여 연주회를 가져왔었다. 2005년에 있었던 25회 페스티벌의 주인공은 바로 피아노의 여제, 마르타 아르헤리치. 본 영상물에는 플로랑 성 야외무대에서 펼쳐졌던 당시의 공연 실황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여류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차세대 거장으로 유럽 음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있는 프랑스의 형제 음악가 르노 카푸송과 고티에르 카푸송의 열연을 뛰어난 고해상도의 화면과 DTS 서라운드의 입체음향으로 만나게 되는 최고의 기회다. 프로코피예프의 아기자기한 복고풍 작품인 교향곡 1번 '클래식'으로 시작되는 이 특별한 콘서트는 아르헤리치가 독주를 맡은 같은 작곡가의 피아노협주곡 1번으로 열기를 더해간다. 이어지는 작품은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르노 카푸송의 참신한 패기와 아르헤리치의 노련한 원숙미가 만들어내는 절묘한 조화가 이채롭다.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하는 작품은 베토벤의 삼중협주곡. 카푸송 형제와 아르헤리치가 최고의 앙상블을 만들어낸다.



TDK DVWW-OPITAL

로시니 :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시모네 알라이모(무스타파)
제니퍼 라모어(이사벨라)
브루스 포드(린도로)
지네트 피셔(엘비라)
알렉산드로 코르벨리(타데오)
마리아 호세 트롤루(줄마)
안소니 스미스(할리)
파리 국립 오페라와 합창단
브루노 캠파넬라

상상력 풍부한 무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지는 일급 로시니가수들의 명인기

〈알제리의 이탈리아여인〉(L'italiana in Algeri)은 로시니가 21살 때 작곡한 2막 코믹 오페라로 작곡가 특유의 유쾌한 선율과 화려한 성악 기교로 충만한 작품이다. 본 영상물은 1998년 4월 파리 국립오페라(Palais Garnier) 실황을 담은 것으로 이 시대 최고의 로시니 가수들

이 뛰어난 명인기의 한마당을 펼쳐나간다. 흥해경과의 듀엣 앨범으로 우리 음악팬들에게도 친숙한 얼굴인 미국출신의 세계적인 메조소프라노 제니퍼 라모어는 천연덕스러운 연기와 화려하고도 안정된 성악기교로 로시니가 만들어놓은 흥겨운 음악과 해학을 한층 더 빛나게 하며, 이 시대 최고의 바소 부파로 각광받고 있는 시모네 알라이모와 로시니 스페셜리스트로 급성장한 미국 테너 브루스 포드가 최고의 앙상블을 만들어 낸다. 음악적인 장점 만큼이나 무대연출과 미술 역시 탁월하다. 루마니아 출신의 세계적인 연출가 안드레이 세르반과 무대와 의상 디자인을 맡은 마리아 드라기치는 만화적인 느낌이 절로 나는 코믹한 무대 위에서 화려한 원색의 의상, 적절히 활용된 무대소품들, 그리고 배우들의 과장된 연기동선을 통해 원작의 코믹드라마적인 속성을 눈부시게 재현해내었다.

[보조자료]

1986년, 프랑스에서 모차르트의 오페라 '티토 왕의 자비'에서 세스토 역을 맡아 데뷔한 이래 제니퍼 라모어는 체칠리아 바르톨리와 더불어서 현존 최고의 메조 소프라노로서 화려하고 빛나는 예술인생을 살아가는 인물이다. 화려한 성악기교는 물론이거니와 무대 위에서의 능숙한 연기 덕분에 최고의 오페라 가수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 중이다. 그가 즐겨 부르는 레퍼토리를 살펴보면 롯시니·모차르트·벨리니·헨델 등의 오페라에서 고난도의 코로라투라 기술을 요구하는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1994년 리처드 터커 상을 수상했고,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폐막식에서 올림픽 찬가를 부르면서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었다. 2002년 흥해경과 함께 내한공연을 함으로써 한국 애호가들에게 한층 더 친근한 이름이 되었다.

안드레이 세르반은 루마니아 출신의 세계적인 연출가이다. 뮤지컬 분야에서도 큰 활약을 펼치며 브로드웨이에서 주가를 올렸고, 토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파리 국립 오페라를 중심으로 수많은 오페라 작품들을 연출하였는데, 만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단순하면서도 화려한 색채의 무대와 과장된 듯한 액팅을 통해 코믹한 내용의 오페라들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국내 오페라 애호가들에게서 큰 호응을 이끌어 내었던 라모의 오페라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의 영상물(Opus Arte) 역시 그의 연출작이었다.

opus ARTE
www.opusarte.com

Opus Arte DVD



Opus Arte OA 0967D

아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두 무대 위에 올려 함께 극을 전개하고 게르기에프 자신은 중절모를 쓴 채 흥에 겨워 지휘한다. 2005년 12월 파리 샤를레 극장 실황.

[보조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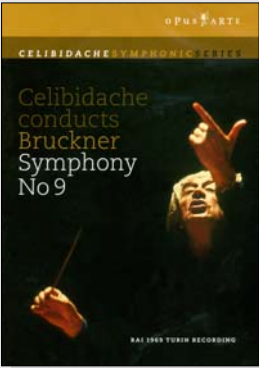
○ 〈랭스로 가는 여행〉은 초연 이후 악보 자체가 온전히 간직되지 못하여 공연될 기회가 없었다. 게다가 로시니조차도 이 오페라를 일화용으로 생각한 바람에 이중 많은 선율을 다음 작품인 〈오리 백작〉에 갖다 썼다. 게다가 고난도의 아리아를 불러야하는 주역급의 로시니 스페셜리스트가 최소 10명 이상 필요한데 그것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까지도 〈랭스로 가는 여행〉은 큰 맘 먹고 어찌다 한 번 올리기도 어려운 작품으로 꼽힌다.

○ 그렇기에 게르기에프의 작업은 더욱 놀라운 것이다. 게르기에프는 마린스키 극장과 그 산하 아카데미의 젊은 가수들을 조련하여 로시니 스타일에 익숙해지도록 육성하는데 성공했다. 마린스키의 저력에 소름이 끼친다. 뿐만 아니라 이 오페라의 분위기를 현대적 감각으로 심분 살려낸 알랭 마라트라의 연출과 완벽하게 결합시켰다. 그 결과 또한 놀랍다. 극장에 있었던 관객은 물론 단지 영상으로 접하는 사람까지도 황홀한 연회에 참여한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다.

○ 〈랭스로 가는 오페라〉는 ‘삼페인을 터뜨리는 오페라’란 평을 들을 만큼 그 풍요로움이 대단한 작품이며 특히 랭스 여행이 무산되었다란 소식이 전해진 시점에서 주인공 전원과 조역 4명이 펼치는 14중창은 오페라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대장관이다.

로시니: 랭스로 가는 여행

게르기에프와 마린스키의 젊은 가수들이 일궈낸 경이로운 성과 로시니의 〈랭스로 가는 여행〉은 1825년 샤를 10세의 대관식을 축하하기 위한 일회용 축전극으로 만들어졌다. 대관식이 열리는 랭스로 가기 위해 한 온천장에 모여든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러시아의 남녀 귀족들! 만국박람회를 연상시키는 분위기 속에 별의 별 사랑 놀음이 펼쳐지는데 결국 마차를 구하지 못해 아무도 랭스에 가지 못한다는 기상천외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로시니의 천재성이 아니라면 감당할 수 없는 전개인 것이다. 게다가 최소 10명 이상의 주역급 가수가 동원되는 초대형 오페라여서 초연 후 159년이 지난 1984년에야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힘으로 리바이벌되었다. 아바도는 당대 최고의 로시니 가수들을 모조리 끌어들이 두 차례나 녹음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러시아 지휘계의 제왕 발레리 게르기에프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다. 자신이 거느린 마린스키와 산하 아카데미의 젊은 가수만으로 출연진을 꾸미고, 화사하기 이를 데 없는 알랭 마라트라의 연출을 더하여 입이 벌어질 정도로 참신한 무대를 꾸민 것이다. 뿐만



Opus Arte OA 0976

첼리비다케의 브루크너: 교향곡 9번

세르지우 첼리비다케 / 토리노 이탈리아 국영방송(RAI) 교향악단

57세의 첼리비다케가 뿜어내는 강렬한 카리스마를 만난다. 루마니아 출신의 대지휘자 세르지우 첼리비다케는 생전에도 음악계의 전설과도 같은 이름이 었다. 그는 연주는 물론 리허설에서도 작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놀라운 집중력으로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최면상태로 몰고 갔었다. 또한 항상 암보를 고집했던 작품에 대한 그의 자신감은 단원들이나 관객들로 하여금 해석에 대한 확고한 신뢰감을 가지게 만들었다. 브루크너의 후기 3대 교향곡들은 이 거장의 묵직한 카리스마가 최고조로 발휘되었던 작품들이다. 특히 마지막 교향곡에 대한 첼리비다케의 열정은 이 연주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커지게 만든다. 오퍼스 아르테는 텔레비전 방송을 위해 녹화되었던 거장의 희귀 연주실황들을 ‘첼리비다케 심포닉 시리즈’라는 타이틀 아래 계속 발굴할 예정이다. 이 영상물은 1969년 토리노 소재의 이탈리아 국영방송(RAI)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것. 방송용 녹화영상물답게 4:3 흑백화면에 모노 오디오 채널의 다소 열악한 원 소스이지만, 오퍼스 아르테 기술진의 정성스런 노력 덕분에 기대이상의 놀라운 해상도의 화질로 거듭났다. 만년의 영상들에서 경험했던 노대가의 풍모와 전혀 다른, 수사자의 맹렬한 안광을 그대로 뿜어내는 한창 때의 첼리비다케의 모습을 이 영상물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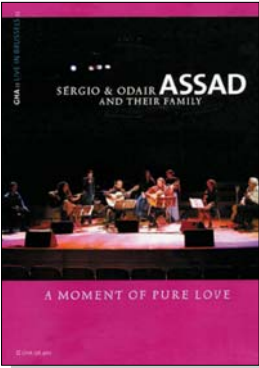


Opus Arte OAF 4023

로시니: 비단 사다리

〈세비야의 이발사〉 이전에 작곡된 단막 오페라의 결정판

로시니는 24살의 젊은 나이로 오페라 부파의 걸작 〈세비야의 이발사〉를 쓴 천재였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좋은 희가극을 많이 썼다. 단막 희가극인 파르사(farsa)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연주되는 것이 불과 20세에 작곡한 〈비단 사다리〉이다. 비밀리에 도르빌과 결혼한 줄리아는 후견인으로부터 불량자크와의 결혼을 종용받는다. 하지만 남편을 놔두고 또 결혼할 수는 없는 일. 하인 제르마노까지 얹혀 꼬이고 꼬였던 가닥은 불량자크가 줄리아의 조카 루칠라에게 매력을 느낀 덕분에 어렵게 풀려나간다. 〈비단 사다리〉란 제목이 붙은 것은 줄리아가 자기 방에 도르빌을 몰래 들여보내고 내보내기 위해 발코니 아래로 비단사다리를 내려놓기 때문이다. 1983년 스위스의 루가노에서 펼쳐진 실황이며 특히 한 시대를 풍미한 최고의 로시니 테너 에르네스토 팔라치오가 도르빌 역으로 출연한다. 팔라치오는 페루 출신인데 현재 최고의 로시니 테너이자 조국의 후배인 후앙 디에고 플로리즈를 유럽 오페라계에 소개한 후견인이기도 하다.



GHA 126460

A MOMENT OF PURE LOVE

Sergio & Odair Assad, Badi Assad 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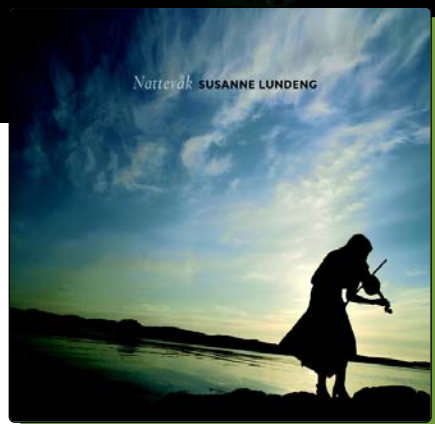
이미 많은 화제를 모은 Assad 패밀리 실황음반. “Brazilian Songbook”의 DVD 버전이다.

벨기에의 수도 부뤼셀에서 Assad 패밀리가 함께 참여하여 브라질 음악의 정수를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각 트랙별로 각기 다른 편성으로 Assad 가문의 3대가 함께 참여하여 펼치는 브라질 음악의 향연을 보고 싶다면 마치 잘 차려진 진수성찬을 마주하고 있는 기분이 드는 영상물이다. 브라질 음악의 특색인 절묘한 리듬감과 정서는 모든 트랙에서 돋보이고 있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기타 듀오인 Assad 형제와 재즈 분야에서 탁월한 기타 솜씨와 특유의 호느끼는 창법으로 인해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Badi Assad가 함께 트리오로 연주하는 Paulo Bellinati의 곡 하나만으로도 이 DVD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하겠다. 음반에서는 접할 수 없는 포토 갤러리와 보너스 트랙으로 삽입된 “Suite Assad” 또한 DVD만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클래식기타, 월드음악, 재즈 애호가 등 장르에 구분 없이 반드시 소장하여야 할 DVD로 추천한다.

또 한번의 돌풍을 예고하다!

SUSANNE LUNDENG

Nattevå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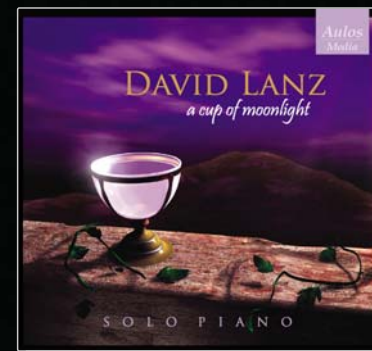
FXCD 310

신비스런 노르웨이의 바이올린 연주자로 그 유명한 베스트 넘버 '나는 당신의 소중한 사람(Jeg Ser Deg S te Lam; 아이 세르 데이 쇠트 램)'의 주인공인 수잔 룬덴이 내놓은 오랜만의 신보다. 아홉 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노르웨이의 옛 연주자들로부터 연주전통과 노르웨이 민속음악에 관한 많은 정보를 입수했던 그녀의 앨범은 언제나 특별한 수밖에 없다. 이번 음반도 노르웨이 전통 민속 음악음반이다. 그녀 특유의 매혹적인 선율이 많은데, 타이틀곡인 '잠 못 이루는 밤' 외에 '백일몽 같은 왈츠', '욕망', '남자들을 위한 춤', '출구' 등 아름다운 음악들이 주옥같은 시편처럼 담겼다.

미국 최고의
뉴에이지 아티스트

DAVID LANZ

a cup of moonlight



데이비드 렌즈 | 한잔의 달빛

철학, 동정심, 감사, 애뜻한 정서의 편린들

그래미상 수상 후보자로도 올랐던 미국 최고의 뉴 에이지 아티스트 데이비드 렌즈가 내놓은 희심의 앨범. '한잔의 달빛'이란 타이틀처럼 아홉 곡이 차분하고 고요하며 농밀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다. 삶과 사랑, 끊임없이 변하는 우리와 우리 주위의 세상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 창작의 기쁨과 자신의 음악세계에 영향을 끼친 아티스트들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때때로 명상과 휴식이란 컨셉트를 가지고 만든 서정시 같은 단편들이다. 주위를 돌아보고 점점 더 깊이 많이 느끼며 사색하는 렌즈의 모습들이다.

데이비드 렌즈 공연 안내

[세계적인 거장들이 펼치는 3일간의 로맨스 "아주 특별한 月.花.水"]

* 일시 : 5월 28일(월) _ 29일(화) _ 30일(수) 오후8시

* 장소 : LG 아트센터

* 출연 : 데이비드 렌즈(28일), 텅스타드 & 럼블 (29일), 수잔 치아니(30일)

* 문의 : 피닉스 엔터테인먼트 아시아 02-529-3529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로맨틱 선율의 피아니스트 - David Lanz

2003년 그레미 뉴에이지 올해의 앨범 상에 빛나는 세계 최고의 윈드/기타 듀오 - Tingstad & Rumbel

2006년 세계최대 유료 음악 사이트 Napster 다운로드 1위

(英 Most Played Self-Published Artist 부문)에 빛나는 국내 초연의 피아니스트 - Suzanne Ciani

NAXOS DIGITAL SERVICES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로 선정,
세계 최대 클래식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는 **NAXOS**는

방대한 자체 레퍼토리와 유럽 음반사들의 음원들을 더한
클래식 전문 스트리밍 사이트인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와
재즈 전문의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를 선보입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korea

- 약 15,000개 음반 / 210,000여 트랙의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음악 서비스
- Naxos & Marco Polo 전체 레퍼토리와
- Analekta, ARC, Artek, BIS, Bridge Records, CBC, Celestial Harmonies, Collegium, Dacapo, First Edition, Gimell, Hänssler, Morrison Music Trust, PentaTone, Prophone, Proprius, Toccata Classics 레이블의 음악
- 매달 25~30여장의 음반 업데이트
- 오페라 대본, 작곡가, 아티스트 및 작품 해설 등의 유용한 정보제공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jazz

- Naxos Jazz와 Fantasy Jazz등 22개 유럽 재즈 레이블 음악
- 총 2,000여 개 재즈 음반 / 약 20,000 트랙
- 약 500여명 에 이르는 재즈 뮤지션 들의 음악

“거대한 음원의 바다...”

(그라모폰 코리아)

“지금까지 접해본 가장 인상 깊은 디지털 라이브러리.”

(미국 도서관 저널, 평가 등급 A+)

“시·공간이 절약되는 온라인 콘텐츠”

Sound Quality: CD Quality (128K) / Near-CD Quality (64K)

시범서비스 & 문의

NAXOS KOREA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51-37 이테크밸리 1206호
Tel_02 717 1070 / E-mail_naxoskorea@naxos.com
www.naxoskorea.co.kr



KBS 제1FM / 93.1 MHz

세상의 모든 음악 4

그래, 황혼이면 돌아오듯이...



저녁의 정서를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한 그루 든든한 나무가 되어 노을처럼 다양하고, 산 속의 불빛처럼 위로가 되는 음악으로
황혼을 등에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돌아오는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표지사진
콘스탄틴 세르바코프

월간 <아울로스뉴스> 2007년 5월호
통권 제 22호 발행 : 2007년 4월 24일
발행인 : 임용목
출력 : 좋은그림 인쇄 : 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edia.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대)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